

전북 초격차 스타트업 성장 전략 모색

전북중기청·전북도, 투자기관 참석 '초격차 투자 Connect' 개최... 투자유치·사업화 지원 강화

전북지역 초격차 스타트업들이 투자 기관과 직접 만나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만)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18일 익산 스타트업 라운지 키움공간에서 '2026년 초격차 투자 Connect'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18일 익산 스타트업 라운지 키움공간에서 '2026년 초격차 투자 Connect'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산업 분야 핵심기술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다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초격차 스타트업, 투자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투자 연계 확대와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는 미래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사업화 자금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제공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에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12개 기업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선정됐으며, 올해는 5개 기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선정 기업은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고, 별도 평가를 거쳐 최대 6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당 최대 12억 원 규모의 지

원 혜택이 제공된다.

행사에서는 신규 지정된 5개 기업에 대한 현관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이어 기업별 핵심기술과 사업화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참석 기업들은 투자유치와 판로개척, 기술개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기업 성장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투자 및 입 프로그램에서는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이터(AC)가 참여해 기업별 최소 3회에서 최대 6회까지 1대1 상담을 진행했다. 기업들은 투자유치 준비 상황과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받으며 사업 확장 전략을 점검했다.

장상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초격차 스타트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자와 사업화 등 다양한 성장 기회와의 연결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기업과 투자기관이 성장 비전과 가능성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의 계기를 만드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들이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성장사다리 육성 본격화

신규 선도·혁신기업 워크숍 개최... 지역 산업 생태계 성장 지원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가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육성체계의 핵심 기업인 신규 선도기업과 혁신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전북테크노파크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신규기업 워크숍 및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테크노파크와 (사)캠퍼스종합기술원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올해 새롭게 지정된 선도기업과 혁신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및 실무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워크숍은 기업 실무자들의 전략적 의사결정 능력과 리더십을 향상시키고,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서는 ESG 경영 대응과 조직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이 진행되며, 'JBLC 애로해소센터' 전문위원들과의 1대1 맞춤형 컨설팅도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신규 지정 기업들이 겪는 단기·중장기 경영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주)동고래의품 유경진 대표의 '성장사다리 기업인 네트워킹 및 아이스브레이킹'을 시작으로, 나이스디앤비 유우선 팀장의 ESG 진

단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심술년연구소 오성욱 대표의 '하이 퍼포먼스 팀워크(High Performance Teamwork)' 강의 순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역량과 조직 운영 능력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하게 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선도기업 대표 자담회 회장과 지역 부회장이 참석해 신규 지정 기업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선·후배 기업 간 교류를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지역 산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을 보탤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햇양과 착한소비 캠페인' 전개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이 양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소비촉진과 판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북농협은 18일 농협하나로마트 전주점에서 '햇양과 착한소비 캠페인'을 열고 전북산 양파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최근 양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를 돕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마련됐다. 전북농협은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양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판매와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 관련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양파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며 소비 확대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전북농협은 양파 착한소비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 네이버와 농협몰 등을 통해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북산 양파 소비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중장년내일센터, 중장년일자리발굴협의회 개최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내일센터(센터장 이명숙)는 지난 16일 전북중장년내일센터에서 '2026년 상반기 중장년일자리발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북지역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 인력을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하는 상생형 고용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북여성가족재단, 전주상공회의소 등 지역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북지역 고용동향을 공유하고 중장년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북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중장년 채용 수요 발굴 방안 △기관별 기업지원사업과 고용서비스 연계 방안 △중장년 일자리 발굴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역상생 빛났다

혁신도시 상생대상 시상식서 '최우수상' 수상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회관에서 열린 '제1회 혁신도시 상생대상' 시상식에서 혁신도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혁신도시정책연구원과 국회 송기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지방신문협회가 주관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국 혁신도시의 발전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평가는 전북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배점 비중이 가장 큰 '협력' 부문에서 최고점을 획득했으며,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기안전공사는 2014년 전북혁신도시 이전 이후 지역경제와 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상생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발달장애인으

로 구성된 '유니버설 안전예술단' 운영이 꼽힌다. 지난 2020년 창단된 안전예술단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연인원 82명의 장애인을 채용했으며, 121회의 뮤지컬 공연을 통해 약 8,400명의 지역 어린이들에게 전기안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2021년부터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인 '드림온(Dream On)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아동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 보호 종료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지원과 정서적 상담, 진로 탐색 및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혁신도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확대한다. '우리동네 ESG 문화교실'을 통해 홀몸 어르신 대상 노래교실, 방과후 어린이 안전교실, 임산부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 프로그램, 직장인을 위한 퇴근 후 연극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통일부, '제2차 한반도 농업포럼'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과 통일부(장관 정동영)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남부회담본부에서 정부와 학계, 농업 분야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반도 농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시대를 통해 본 남북 농업협력의 과제와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과거 남북 농업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문제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 농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경 농촌진흥청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문제는 한반도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 과제"라며 "과거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준비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도 환영사에서 "남북 농업협력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 공동 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다"며 "미래지향적인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실현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개회식에 이어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제1부 주제 발표에서는 이태현 통일농수산사업단 대표가 '민간 차원의 남북 농업협력 경험과 과제'를 발표했으며, 성경일 강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형성과 운영 한계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황용 농촌진흥청 부장이 '북한의 농업 기술 개발 동향을 고려한 남북협력 방향'을 제안했다.

제2부 종합토론은 최윤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남북 농업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추진 과제와 협력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오상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